

ESG 주요 평가지표 탐색: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최신인* · 윤천성**

초 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의제가 사회 전반에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ESG 경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G 개념의 발전과정과 주요 평가 지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관점에서 ESG라는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글로벌 주요국의 탄소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선언 현황 및 ESG 정보공개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인 GRI표준, TCFD권고안, SASB 기준을 분석하여 공통 공시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E) 영역에서는 세 가이드라인 모두 원재료, 에너지, 용수와 폐수,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배출, 환경법/규제위반, 공급업체 환경평가를 평가 지표로 담고 있었다. 사회(S) 영역에서는 GRI와 SASB에서 고용안전, 공정한 노사관계, 산업안전 및 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균등, 지역사회 공헌, 공급망 관리, 고객 편익, 고객정보보호, 사회법/규제위반을 공통 평가 지표로 삼고 있었다. 거버넌스(G) 영역에서는 세 가이드라인에서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거버넌스 법/규제 위반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고 있었다.

본고는 ESG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법제화 추세, 주요 공시 가이드라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주요한 평가 지표를 도출해 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ESG,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목표, GRI, TCFD, SASB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HRD리더십전공 박사과정(주저자) (E-mail: gisell@naver.com)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HRD리더십전공 교수(교신저자) (E-mail: staryoun@hanmail.net)
투고일: 2021년 11월 19일, 수정일: 2021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대형 산불과 기록적인 폭우 등 극단적인 기후재난이 반복적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정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2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했고, 2022년 2월 현재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코로나19가 인간의 환경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인간계로 넘어오며 확산된 바이러스라는 연구결과¹⁾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국제사회에 고조되었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ESG라는 개념은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그 해결 방법론으로 존재한다. 팬데믹 선언을 전후로 유엔 및 유럽연합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투자자들은 기업들을 향해 ‘환경(E)을 파괴하지 않고, 사회(S)에 도움이 되면서, 투명한 기업 거버넌스(G)’를 추구하는 ESG 경영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ESG 체제는 기후변화를 야기한 시장 실패²⁾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성공사례로 변모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앞으로 ESG체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글로벌 국내 기업들도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존립 여부를 보장할 수 없다. ESG 정보 공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항목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가 무엇이며 ESG가 불러올 사회적 변화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기후대응의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ESG 개념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고, 글로벌 주요국의 탄소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선언 현황 및 ESG 정보공개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³⁾. 나아가 글로벌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세부 지표들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들이 ESG

1)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2021년 2월 5일 지난 1세기 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박쥐들이 좋아하는 숲 서식지가 크게 늘어난 중국 남부와 인근 지역이 박쥐 기원 코로나바이러스의 주요 발원지가 됐음을 밝히는 논문을 과학저널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했다. <https://doi.org/10.1016/j.scitotenv.2021.145413> 최종 검색 2021 12 05

2)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텐(Nicholas Stern)은 2006년도에 ‘스텐보고서(Stern Review: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를 발표하며, 기후변화는 가장 큰 시장실패의 사례라고 한 바 있다.

3) ESG를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김대호(2020), 이방실(2020), 김정훈(2021), 이형중 외(2021)가 있다.

관련 전략과 목표를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평가 지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ESG 개념의 발전과정

국내에서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2020년 이후 기업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지만, ESG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다. ES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SG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출발해, 기업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지표로 ESG가 부상하게 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삼정KPMG, 2021).

1. ‘지속가능성’ 개념의 등장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는 당시 노르웨이의 수상이자 UN 환경위원회(UN WCED)의장이던 할렘 브룬트란트(Harlem Brundtland)가 발간해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불리는데,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처음 제시되었다.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기업들이 글로벌로 확장되던 시기로, 기업과 자본에 의한 대규모의 환경 사고⁴⁾가 잇따라 발생하던 시기였다. 이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환경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이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다.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발전”이라고 정의했다.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삼정KPMG, 2021).

4) 1984년에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주(州) 보팔의 화학공장 유독가스 누출 사고(Bhopal gas tragedy)가 발생했고, 1986년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Chernobyl disaster)가 발생했으며, 1990년에는 미국 알래스카 주(州) 프린스윌리엄사운드 일대에서 엑슨발데즈의 원유 유출 사고(Exxon Valdez oil spill)등 대형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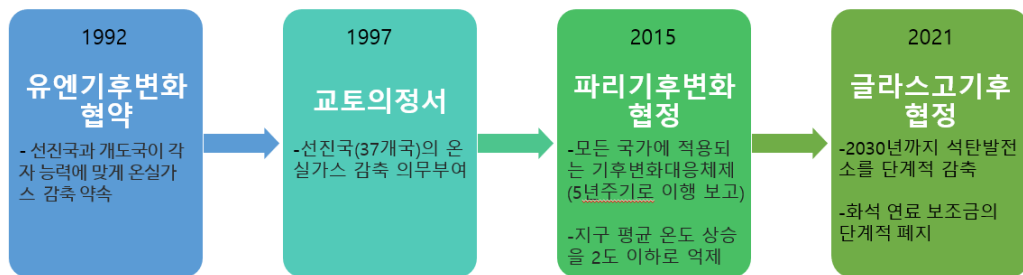
2. 글로벌 기후변화체제의 전개 과정

본격적인 기후변화체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UNCED)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세계 185개국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은 지구환경문제를 논의하고, 선언적 의미의 ‘리우 선언’과 행동강령인 ‘의제 21’을 채택하였다. 리우선언에는 ESG 가운데 환경영역(E)의 토대가 되며 세계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회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05년 발효되어 2020년까지 가능한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 37개국의 탄소 의무감축량을 설정했으나, 강제 의무가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 세계 192개국이 참여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참여하는 보편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기후협정의 핵심은 세기말인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2021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글라스고기후협정에는 197개국이 참여하였다.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했다. 특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석탄 기반 산업들의 쇠퇴와 신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출처: 언론보도 종합 연구자 정리

<그림 1> 글로벌 기후변화체제의 전개 과정

3. ESG의 첫 등장

2000년대에 들어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국제사회는 ESG 체제로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UN이 선도적으로 ESG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주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2000년 코피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여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해 유엔은 이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자원과 능력이 있는 수천 개의 기업들과 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를 발족시켜, 기업 활동에 친 인권, 친환경, 노동권보장, 반 부패 등의 10대 원칙을 제시했다⁵⁾.

<표 1> 유엔 글로벌컴팩트의 10대 원칙(2000년)

영역	공시 항목
인권 (Human Rights)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기준 (Labour Standards)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9.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 부패 (Anti-Corruption)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출처: 유엔 글로벌컴팩트(2000), 유엔 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2021.12. 06. 최종검색)

2004년 유엔 글로벌컴팩트는 ‘먼저 고려하는 자가 이긴다-세계를 바꾸는 데 금융을 연결하기’(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2004)⁶⁾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ESG’가 신조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보고서에서는 ESG라는 용어가 총 116번 사용되는데, 첫 등장은 목차 직후의 요약 페이지로⁷⁾.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5)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 (2021.12. 06. 최종검색)

6) 미화 6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20개 금융기관이 발행하고 승인한 이 보고서는 자산 관리, 증권중개서비스 및 관련 연구 기능에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를 더 잘 통합하려는 지침과 권고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권고사항으로, ESG 가치를 금융시장 조사, 분석 및 투자에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Who Cares Wins -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ifc.org) (2021.12.08. 최종검색)

7) ‘먼저 고려하는 자가 이긴다-세계를 바꾸는 데 금융을 연결하기’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에 관한 권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적절한

평가에 있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잘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4. ESG의 본격적 사용, 유엔 책임투자원칙

ESG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6년 유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유엔 책임투자원칙은 앞으로 지구 환경과 인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의지를 담은 원칙으로, 6개의 투자 원칙과 35개의 세부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는데, 원칙1, 원칙2, 원칙3에 ESG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ESG라는 용어가 명시된 유엔 책임투자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 시 ESG 이슈들을 통합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자산보유정책 및 실행에 있어 ESG 이슈들을 능동적으로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이다.

유엔이 직접 나서 책임투자원칙을 제정한 배경에는 2000년대 전후로 글로벌 주요국에서 기업의 ESG 요소가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2005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대형 기관투자자 그룹들에게 ‘책임투자를 위한 원칙’의 개발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했고, 12개국의 20개 기관투자자 대표, 정부 조직, 시민사회 조직, 학계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1년여간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책임투자원칙을 탄생시킨 것이다. 2021년 12월 기준 전 세계 3,826개의 글로벌 투자사 및 각국 연금 등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 기관의 자산은 총 100조달러(11경 6000조원)에 이른다.⁹⁾ 세계 최대 연금인 네델란드공무원연금, 켈피포니아공무원연금, 캐나다연금 등과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등의 금융기관이 가입돼 있다.

연구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더 잘 통합하고 필요한 투자 노하우, 모델, 도구를 창의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더욱 개발해야 한다. 특히 기존 알려진 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업종과 자산 계층까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때문에 신흥시장은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은 신흥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학술기관, 경영대학원 및 기타 연구기관들이 초청되어 고도의 연구와 사고에 기여함으로써 재무분석가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8) 기업의 ESG 요소가 기업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IMF(2019)는 ESG금융의 성장 이유는 장기적으로 ESG 관련 리스크를 찾아내어 사회에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ESG 활동이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ins, Servaes, & Tamayo(2017)는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9) <https://www.unpri.org/pri/about-the-pri> (2021.12, 06 최종검색)

Ⅲ. 글로벌 차원의 ‘ESG’규제 강화

1.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설정

2015년 9월 유엔은 2030년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했다.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해서 달성해야 할 필수 과제로,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기(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 하에 인간, 지구, 번영, 파트너십 5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330개가 넘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다.

SDGs가 ‘목표’라면 ESG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실행하는 ‘수단’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재필, 2021). ESG 경영을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유니레버, 네슬레, 코카콜라 등 글로벌기업들의 최근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SDGs를 자신들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상품과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등과 긴밀히 통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ESG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로 묶어볼 수 있다. ESG와 SDGs와 관계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ESG와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연계

영역	관련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환경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세부목표 6개, 지표 15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4개, 지표 7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세부목표 7개, 지표 17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세부목표 11개, 지표 21	
	13. 기후변화와 대응	세부목표 4개, 지표 7	
	14. 해양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9개, 지표 13	
	15. 육상생태계 보전	세부목표 7개, 지표 15	
사회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목표 4개, 지표 9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세부목표 5개, 지표 10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세부목표 9개, 지표 20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10개, 지표 28	
	5. 성평등 보장	세부목표 7개, 지표 14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6개, 지표 10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부목표 5개, 지표 11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세부목표 5개, 지표 11	
	글로벌 거버넌스	16. 평화·정의·포용	세부목표 13개, 지표 18
		17. 지구촌 협력 강화	세부목표 7개, 지표 10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20).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연구자 정리.

2. 탄소중립 의제의 부각과 ESG 공시 의무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서명한 192개국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맞게 국가별 목표량을 설정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고조된 기후위기 의식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속속 선언하고 있다. 유럽을 위시하여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속속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각국 정부는 법과 규제를 동원해 ESG의 실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탄소국경세, 플라스틱 규제 등을 도입함에 따라 앞으로 ESG 체제로의 전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KB경영연구소, 2021).

각국의 탄소감축과 탄소중립 선언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탄소배출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¹⁰⁾. 주요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선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국가별 탄소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선언 현황

국가	유럽	미국	중국	한국
탄소 감축량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23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0-52% 감축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이산화탄소배출량 65% 이상 감축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탄소중립	2050	2050	2060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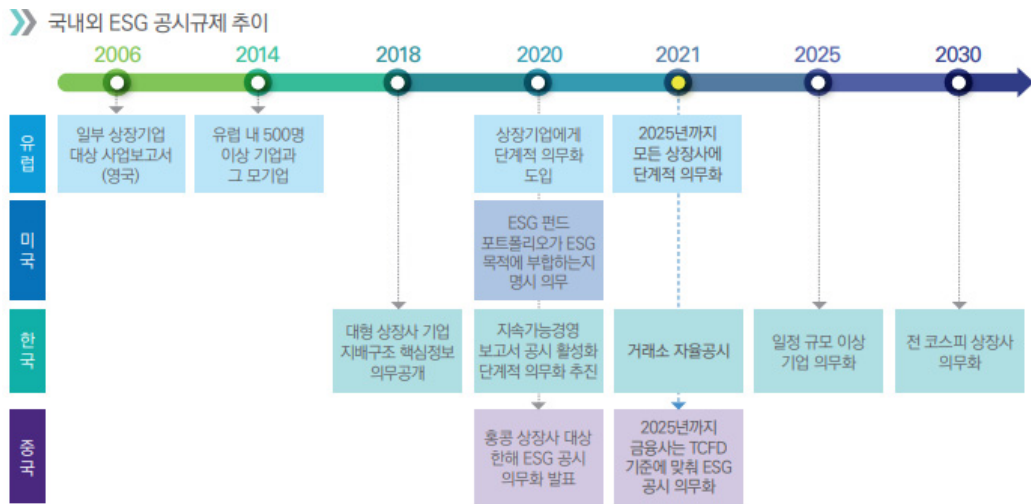
출처: 언론보도 종합, 연구자 정리

더불어 각국 정부는 법과 규제를 동원해 ESG의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이 제정된 2006년 이후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84개국에서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삼정KPMG(2021)에 따르면 현재 국제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들은 20개국으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저지 기조와 맞물려 앞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한

10)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간한 ‘2021 ESG Trends to Watch’라는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ESG투자 발판, 생물다양성, ESG데이터 공시, 불평등 등 5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MSCI ACWI 지수(MSCI의 대표적인 글로벌 지수)의 89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온난화 가능성 매트릭스’를 조사한 결과, 향후 지구온난화가 약 3.6°C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2°C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5%씩 줄여야 하고, 1.5°C 이하로 맞추려면 매년 9~15%를 줄여야 2050년 넷제로가 된다. 2100년까지 1.5°C 내지 2°C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MSCI ACWI 지수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2050년까지 평균 8-10%의 탄소 감축을 해야 한다. <https://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2021-esg-trends-to-watch> (2021 12 16 최종검색)

곳은 유럽이다. 2014년에 의결되고 2017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ESG 공개법’은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앞당긴 대표적인 국제법으로,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탄생하였다(한민지, 2021). 이어 2018년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장 자원조달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15년부터 싱가포르와 홍콩도 상장 기업의 ESG 지표 공개를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에 따라 현재 자율 공시로 지정되어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자산 2조 원) 기업에게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Source: 연준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출처: 삼성KPMG 경제연구원(2020)

<그림 2> 국내외 ESG 공시규제 추이

3. ESG 정보공개 표준 글로벌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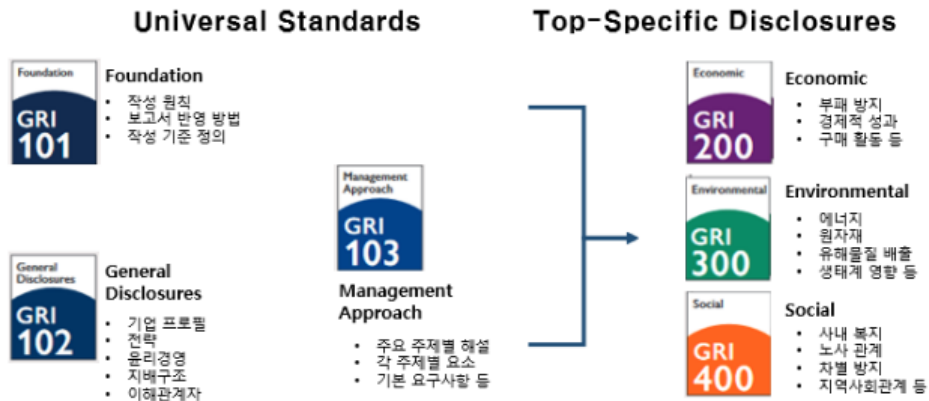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다. 삼성KPMG(2021)에 따르면 KPMG가 2020년 전 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동향을 조사한 결과,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매출 상위 250개(G250) 기업의 96%와 한국을 포함한 52개 각 국가별 매출 상위 100개(N100, 총 5,2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 표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권고안,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SASB)이다. 금융

위원회(2021)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 130여개 기업 역시 GRI 표준, TTCFD 권고안, SASB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세 가지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평가 지표들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들이 ESG 관련 전략과 목표를 수립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요소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GRI Standards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은(GRI)는 1997년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환경책임경제연합 CERES)이 기업이 환경 및 사회문제에 책임을 갖고 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제작한 보고서다. GRI 표준(GRI Standards, 2016년 개정본)¹¹⁾은 현재 전 세계 기업과 기관에서 가장 널리 사용 중인 보고서 표준으로, 업종에 관계없는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GRI 표준은 공통표준과 특정주제공시로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출처: GRI Standard(2016)

<그림 3> GRI 표준의 체제

특정주제공시는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제 분야(7 주제, 19 지표), 환경 분야(8 주제, 32 지표), 사회 분야(19 주제, 4개 지표) 등 150개 이상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11) GRI Standard는 모든 정보를 정해진 표준 양식에 맞춰 작성되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정량화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갈수록 투자자나 규제기관들이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많은 성과와 데이터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GRI Standards를 활용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GRI - Standards (globalreporting.org) (2021.12.08. 최종 검색)

〈표 4〉 GRI 특정주제공시(Top-Specific Disclosure) 항목

영역	공시 항목			
경제	• 경제 성과 • 반 부패	• 시장지위 • 부정경쟁 행위	• 간접 경제 효과 • 세금	• 조달 관행
환경	• 원재료 • 배출	• 에너지 • 쓰레기	• 용수와 폐수 • 환경 법규 준수	• 생물다양성 • 공급업체 환경평가
사회	• 고용 • 다양성과 기회균등 • 강제 노동 • 지역사회 • 마케팅 및 라벨링	• 노사관계 • 차별금지 • 보안 관행 • 공급망 관리 • 고객정보보호	• 산업안전보건 •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 원주민 권리 • 공공정책 • 컴플라이언스	• 훈련 및 교육 • 아동 노동 • 인권 평가 • 고객 안전보건

출처: GRI Standard(2016)

2)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

ESG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공시 중 하나는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2017년 발표한 권고안이다. 기후변화는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유발하여 건전성을 훼손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기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둔 TCFD의 권고안은 매우 중요한 기업 평가 지표가 된다.

2015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ESG 요소 중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마련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금융안정위원회는 TCFD를 설립하고, 2017년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4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1 TCFD 보고서¹²⁾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전 세계 89개국의 2,616개 이상 기업 및 기관이 TCFD에 대해 지지선언을 했다. 가입 기업 및 기관의 수는 2020년 1512개에서 1년만에 1000여개 기업이 추가 가입하여 2021년 10월 기준 2616개가 되었다. 시장지배력도 2018년 108조 달러에서 2021년 219조 달러로 크게 성장하였다. 2020년 TCFD 지지표명 최고 국가는 일본(527), 영국(384), 미국(345), 호주(125), 프랑스(117) 순이다. TCFD를 지하는 기업 및 기관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¹³⁾.

12) 2021-TCFD-Status_Report.pdf (bbhub.io) (2021년 12월 08일 최종검색)

13) 2021년 6월 영국 콘웰에서 진행된 G7 정상회담에서 G7 재무장관들은 TCFD의 권고에 따라 기후보고를 의무화한다는 합의에 동의했는데, 최종 성명서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TCFD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 의무화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간 금융을 동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탄소중립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강화할 것”라고 강조한 바 있다.

<표 5>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공시 권고안

영역	공시 항목
거버넌스	- 기후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와 관리 및 감독내용 - 기후리스크와 기회를 평가, 관리하기 위한 경영진의 역할
전략	- 단기/중기/장기적인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 기후리스크와 기회가 영업·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 지구 평균기온 2도 이내 상승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기후관련 시나리오가 영업·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관리	- 기후리스크 식별, 평가 및 관리절차 - 기후리스크 식별, 평가 및 관리의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
지표 및 목표	- 기후리스크와 기회를 평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 -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관련 리스크 - 기후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치 및 성과

출처: TCFD(2017),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0/10/TCFD-Summary-of-Changes-and-Clarifications-062717.pdf> (2022년 2월 23일 최종검색)

3)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기준

미국의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 요소를 중심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산업별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SASB는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77개 산업별로 공시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GRI밖에 없었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시장에 뒤늦게 등장했지만,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 요소를 중심으로 간결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져 투자자들에게 빠르게 수용되고 있다. 현재 GRI 표준과 함께 가장 널리 채택되며, 특히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2020년 SASB 기준과 TCFD 기준 보고서 공시를 요구¹⁴⁾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SASB의 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4) 2020년 1월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는 기업대표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우리는 기업들에게 SASB 및 TCFD에 부합하는 공개를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TCFD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를 2도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가 완전히 실현되는 시나리오를 운영하기 위한 회사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투자 위험 증가를 감안할 때, 기업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경우 경영진에 대한 투표에 더 반대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즉, 블랙록은 TCFD 및 SASB의 권고 사항에 따른 기업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영진에게는 반대하겠다는 의미다.

<표 6> SASB 공시 항목

영역	공시 항목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 에너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료 관리 물 및 폐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생물다양성 영향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 고객 편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공개 및 라벨링 접근성 및 적정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보안 및 고객 프라이버시 공정한 마케팅 및 광고
인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관계 다양성 및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 및 복리후생 공정 노사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건강, 안전, 복지 직원 채용, 계발, 유지
사업 모형 및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와 용역의 수명주기에 걸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및 영업에 미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포장 제품 품질 및 안전성
리더십 및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 위험 관리 사업 윤리 및 지급 투명성 규제포획 및 정치적 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관리 사고 및 안전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적 행위 자재 조달

출처: SASB SAstandard(2017), SASB Conceptual Framawork, https://www.sasb.org/wp-content/uploads/2020/02/SASB_Conceptual-Framework_WATERMARK.pdf (2022년 2월 23일 최종검색)

SASB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SASB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SASB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작년 349개사에서 올해 506개사로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다. 지속가능 보고서 공시한 한국 기업 중 SASB 기준을 활용한 국내기업은 2020년 16개사(11.6%)에서 올해 34개사(24.6%)로 증가했다.

IV. ESG 평가지표 도출

본 장에서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3개 공시 가이드라인인 GRI 표준, TCFD(권고안), SASB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평가 지표들을 도출해 보았다. 세 가이드라인의 공시표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글로벌 3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공시 항목

영역	공시 항목	GRI	TCFD	SASB
환경	• 원재료	○	○	○
	• 에너지	○	○	○
	• 용수와 폐수	○	○	○
	• 생물다양성	○	○	
	• 온실가스 배출	○	○	○
	• 폐기물 배출	○	○	○
	• 환경 법/ 규제 위반	○	○	○
	• 공급업체 환경평가	○	○	○
사회	• 고용 안정	○		○
	• 공정한 노사관계	○		○
	• 산업안전 및 보건	○		○
	• 훈련 및 교육	○		○
	• 다양성과 기회균등	○		○
	• 차별금지	○		
	•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		
	• 아동 노동	○		
	• 강제 노동	○		
	• 보안 관행	○		
	• 원주민 권리	○		
	• 인권	○		○
	• 지역사회 공헌	○		○
	• 공급망 관리	○		○
	• 고객 편익	○		○
	• 고객 정보보호	○		○
• 공정한 마케팅 및 라벨링	○		○	
• 사회 법/ 규제 위반	○		○	
거버넌스	• 리스크 관리	○	○	○
	• 윤리경영	○	○	○
	• 감사 기구		○	○
	• 부정 경쟁 행위	○		○
	• 거버넌스 법/규제 위반	○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성본부(2021) 참고, 연구자 정리

먼저 환경(Environment)은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요소들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탄소배출 관련 이슈이다. 세 가이드

라인 모두 환경 관련 정보 공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기후위기와 더불어 자원고갈, 물,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화도 중요한 정보공개 지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사회(Social)는 일반적으로 현대 노예, 아동 근로, 근로 조건, 근로자 관계 등으로 인권과 노동권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나아가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특히 GRI 표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인권, 환경, 견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SDGs와 관련한 포괄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는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요소들로, 이사회 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 기구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TCFD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가치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진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중핵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V. 결론

앞으로 ESG는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발간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언급된 ‘지속가능 발전’에서 출발한 ESG 개념은 2006년 UN PRI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전 세계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체제가 출범하고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뉴 패러다임이 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배출 기업들은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상황(삼정KPMG, 2021)이다. 이제 기업들은 UN PRI, GRI 표준, TCFD 재무정보공개 권고안, SASB 표준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발표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에 따라 현재 자율공시로 지정되어있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자산 2조 원) 기업에게 의무화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즉, 앞으로 기업은 ESG 관련 목표와 활동을 지속가능 보고서 등으로 공시해야 하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 전문평가사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 과제가 나오면 그것을 또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평가와 개선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야 한다.

결국 ESG는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등 규제기관뿐만이 아니라 투자자, 신용평가사, 소비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되는 전 세계적인 신 경영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은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외면한다며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며, 반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본고는 앞으로 기업가치가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할 ESG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법제화 추세, 공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세부요소를 도출해 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21. 2. 8). ESG 국제동향 및 국내시사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21. 11. 11). SBSA 기준 국문번역 공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21. 11. 11).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전략.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김대호(2020). 그린스완이 온다: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새 패러다임. 서울: 한올아카데미.
- 김정훈(2021. 4. 6).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ESG 인증 두 가지 [더 나은 세계, SDGs] (177). 세계일보
- 김재필(2021). ESG 혁명이 온다. 서울: 한스미디어.
- 김호균 · 정홍진 · 김민규 · 박동준(2009).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UN글로벌콤팩트, GRI와 ISO 26000 특성분석.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품질경영학회. 112-117
- 사회적가치연구원(2021). ESG Handbook. 서울: 사회적가치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성본부(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생산성본부.
- 삼정KPMG(2020). ESG 경영 시대, 전략패러다임 대전환. 서울: 삼정KPMG.
- 삼정KPMG(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삼정KPMG 뉴스레터. 2021(4). 삼정KPMG. 4-9.
- 이방실(2020. 11). ESG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거버넌스 기후변화 문제, 사회이사들이 관심 가져야. 동아비즈니스 리뷰 기사.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5/article_no/9818/ac/magazine
- 이형중 · 송양민(2021). ESG경영과 자본주의 혁신. 서울: 21세기북스.
- 환경MOOK(2021).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서울: 한국경제신문.
- 한민지(2021). ESG체제에 따른 유럽연합의 대응과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법과 기업 연구. 11(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36.
-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20). 2020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KB경영연구소(2021). KB트렌드보고서(1) - 소비자가 본 ESG와 친환경 소비 행동. KB경영연구소
- Enel(2020). Sustainability Report. https://www.enel.com/content/dam/enel-com/documenti/investitori/sostenibilita/2020/sustainability-report_2020.pdf
- European Commission(2021. 3. 8). Reports on development of 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10308-efrag-reports_en
- European Union(2020). 2050 long-term strategy. https://ec.europa.eu/clima/policies/strategies/2050_en
- EU(2020).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March.
- FSB(2021. 7. 7). Report on promoting climate-related disclosures. <https://www.fsb.org/wp-content/uploads/P070721-4.pdf?edLDf=false>

- GRI Standard(2016). GRI 101: foundation 2016. <https://www.globalreporting.org/standards/media/1036/gri-101-foundation-2016.pdf>
- Holden, E., Linnerud, K., & D. Banister(2017). The imperativ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25(3), 213-226.
- IFRS(2021. 4. 30). IFRS foundation trustees publis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roposed new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04/ifrs-trustees-publish-institutional-arrangements-for-proposed-new-sustainability-standards-board/>
- IMF(2019).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Washington, DC: IMF.
- IFC(2005). *Investing for long-term value*. Washington, DC: IFC.
- McKinsey(2019). *Five ways that ESG create value*. London: McKinsey.
- O’connor, C Performance for Investors, New York: NYU. & S. Lavowitz(2017). *Putting the “S” in ESG: Measuring human rights*.
- MSCI(2021). *2021 ESG trends to watch*. New York: MSCI.
- OECD(2020).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 Paris: OECD.
- TCFD(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1/10/FINAL-2017-TCFD-Report.pdf>
- TCFD(2021. 10. 14). 2020 Status Report. 2021-TCFD-Status_Report.pdf (bbhub.io)
- UNEP FI(2020). United nations-conven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 <https://www.unepfi.org/netzero-alliance/>
- UNEP FI,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Ernst & Young(2020. 9. 25). TCFD report playbook. <https://www.unepfi.org/publications/banking-publications/tcf-report-playbook/>
- UN Global Compact(2019). Business ambition for 1.5 °C. <https://unglobalcompact.org/take-action/events/climate-action-summit-2019/business-ambition>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ESG and the Search for Major ESG Evaluation Indic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Choi, Shin-In* · Youn, Chun-Sung**

*Doctor's Course, Major in HRD Leadership, Seoul Venture University(Lead author)
(E-mail: gisell@naver.com)

**Professor, Major in HRD Leadership, Seoul Venture University(Corresponding)
(E-mail: staryoun@hanmail.net)

Recently, ESG strategies have been rapidly emerging around the world. After the COVID-19 Pandemic, ESG management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in the future as the paradigm shift takes place from all areas of society to a low-carbon society. As global ESG standards continue to be strengthened, it is crucial to study more effective response systems in relation to ESG information disclosure, responsible investment, and ESG certification in each country.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explore the alternative ESG, what social changes ESG will bring, and how companies should respond to them.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ESG was examined. Next, we looked at the carbon reduction goals, the current status of carbon neutrality, and the legalization of ESG information disclosure in major global countries. Finally, by analyzing the three guideline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tandard,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recommendation,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elements of the 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detailed aspects of the environment (E), society (S), and governance (G) were derived.

Keywords : ESG,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RI, TCFD, SASB